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7. 1.(월) 06:00 < 7.1.(월) 석간 > 배포 2024. 6. 28.(금)

유류세 환원분의 단계적 반영을 위해 알뜰주유소의 역할 강화

- 2차관, 유류세 일부 환원 시행일 알뜰주유소 현장방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최남호 2차관은 유류세 일부 환원* 시행일(7.1일)에 맞춰 경기도 안양시 소재 안양동 주유소를 방문하여 석유 판매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석유공사, 석유관리원, 알뜰공급사(SK에너지) 등 알뜰주유소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유류세 인하율 조정 : 휘발유 25%→20%, 경유 37%→30%, 액화석유가스(LPG) 37%→30%

그간 정부는 정유사·주유소 등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 이후 수요가 급증한 석유류의 물량 공급을 차질없이 진행했고, 급격한 가격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도 요청하였다.

알뜰주유소의 경우에는 재고물량이 확보된 7월 첫째주는 유류세 환원분 반영을 최소화하고 둘째 주부터 점진적으로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격인상 자제 주유소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류세 환원분을 초과하는 가격인상이 없도록 7월 한 달간 판매가격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가격 상승기에 편승하여 물가상승을 부추기거나 가짜석유 등을 불법적으로 유통시키는 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한 범부처 시장점검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금년 상반기에 수도권·대도시를 중심으로 알뜰주유소 27개 선정이 완료되었으며 하반기에도 13개를 추가 선정하여 당초 목표한 바와 같이 금년 내 40개 확대를 달성할 계획이다.

최남호 2차관은 이 자리에서 “여행수요 증가, 지정학적 불안 등 대외적 변수로 인해 국제석유제품 가격이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서 국내 석유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세 환원으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고 언급하고, “국민 기름값 지킴이로서 알뜰주유소가 보다 적극적으로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이 수행해야 하고, 업계에서도 재고소진 등을 감안하여 유류세 환원분을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상생의 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	책임자	과 장	김대일 (044-203-5220)
		담당자	서기관	김기열 (044-203-522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